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바꾸고 바람직하게 혁신하자

이다. 용꿈을 꾸고 자녀를 임태하면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며 하는 일에 용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그러므로 올해는 용꿈을 꾸고 훌륭한 자녀와 국민이 많이 출생했으면 한다. 나리의 임금이 앉는 의자도 용상으로 장식했으며 집의 지붕은 용머리 장식이 있다. 이처럼 용은 상징적 동물이면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꾸는 것은 밤낮이 바뀌듯이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과 인간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바꾸는 것을 혁신(革新)이라 하며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을 쇄신(刷新)이라 한다. 바꾸려면 안된다는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바꿔야 하며 보수적인 낡은 고정관념(固定觀念)을 버리고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올해는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혁신을 해야 하며 국민의 마음이 보수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새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남긴 말 중에 '탈피(脫皮)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는 말이 있다. 뱀은 주기적으로 껌질을 벗는데 만일 피부에 손상을 입거나 어떤 병에 걸려 껌질을 벗지 못하게 되면 자기 껌질에 갇혀 질식해 죽는다.

경우는 다르지만 사람 역시 마찬가지이다. 살아가는 동안에 쓰인 나쁜 버릇, 나쁜 습관, 나쁜 마

음을 마치 뱀이 껌질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변화돼야 한다. 용도 뱀과 같이 껌질을 벗고 변해야 하는 파충류다. 그러므로 올해는 개인이나 국가 사회가 묵은 껌질을 벗고 새롭게 변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